

##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연구\*

변 옹 현\*\*  
이 문 호\*\*\*  
김 중 화\*\*\*\*  
천 세 혁\*\*\*\*\*  
전 태 영\*\*\*\*\*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입지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 유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기업에 대한 태도, 지역 이미지, 경제력, 부동산 가격, 생활인프라, 인력, 교통, 산업기반시설, 자금조달 편리성, 부동산가격 상승가능성, 홍보활동, 보조금, 금융지원, 세제감면, 공무원의 서비스, 인력교육 및 조달, 인프라적합성, 연구개발인프라 및 경영지원의 19개 요인을 사용했다. 기업유치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는 중요도-만족도의 이차원 교차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설문응답 총수는 348개이며 종업원 수 15인이 넘는 제조기업 235개와 전문가 113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을 권역별, 조사대상별, 기업규모, 업종에 따른 특성 등 4부문에 걸쳐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각 지역, 업종, 기업규모, 그리고 유치경로에 따라 유치요인별 개선필요강도가 다르게 나타나 집단 특성에 맞춘 다양한 기업유치 자원투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내에서 성장한 기업과 외부로부터 이전해 온 기업 사이에 정책지원상 상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든 부분에 걸쳐 부동산가격상승가능성이 기업입지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기업유치, 제조업투자유치

### 1. 서론

21세기 초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 많은 지역들은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핵심은 제조기업 유치에 있다. 관광대국인 스위스도 관광수입이 국민총생산의 10%를 넘지 못한 가운데 정밀화학, 기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제조업만큼 고용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산업은 없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제조기업의 유치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화두이다.

기업들은 지역과 국가의 한계를 넘어 기업의 성장을 담보하고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쉽게 이전하고 있다. 산업자본주의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기존 공장입지의 고정자산투자액이 기업가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브랜드와 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에는 생산공장 기준

논문접수일: 2009. 06. 02.                    게재확정일: 2009. 10. 23.  
\* 본 연구는 강원발전연구원과 한림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yhbyun@hallym.ac.kr), 강원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림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주저자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lipolo@naver.com), 공동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jw-kim@hufs.ac.kr), 공동저자  
\*\*\*\*\*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shchun@snut.ac.kr), 공동저자  
\*\*\*\*\* 경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tyjun@nongae.gsnu.ac.kr), 공동저자

투자액의 중요성이 기업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생산공장의 이동 가능성이 한층 더 쉬워지고 있다. 제조기업은 고용 창출, 생산, 기술이전, 관련 3차 산업의 성장 등을 통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제조기업이 많이 있는 지역은 번영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그나마 있던 지역 자원의 외부 유출로 인해 쇠퇴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 등 각종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한 현재 까지도 제조업만큼 고용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은 별로 없다.

이렇듯 중요한 기업유치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21세기에 접어들어서야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기업유치가 국가 내지는 지역의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매김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기업유치에 대한 학문적 영역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학술적 담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를테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가에 대한 학제적 입장에서의 분석적 연구는 아직 없다. 효율적 기업유치자원배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유치 대상에 따라 유치자원의 배분전략이 달라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없다. 지역,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들의 중요성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적합한 기업유치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한정된 기업유치자원들을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분석틀을 기업경영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기업유치연구는 20세기 말에 시작된 새로운 영역이라 아직 국내외에 걸쳐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부족한대로 기존의 국내외의 기업유치 연구 상당 부분을 망라하여 요약 정리해 놓

았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개선 우선순위에 대해 권역, 기업규모, 업종 별로 조사를 하여 기업입지와 관련한 지역의 현실을 다각도에서 관찰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았다. II장에서는 기업유치 관련연구들을 소개하였고, III장 및 IV장에서는 연구조사 설계 및 연구모형,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V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정리했다.

## II. 이론적 배경

### 2.1 기업투자입지요인

기업입지는 환경적 기반과 정책적 기반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환경적 기반은 동종 내지는 관련 산업의 집적도, 다양한 혁신기관의 집적, 풍부한 판매시장, 노동시장, 산학연,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성, 혁신분위기, 정보통신, 입지지역 이미지, 저렴한 지가 등 그 지역에 주어진 기업입지 환경 요인들을 망라한다(이덕희·박재곤 1999)(윤재홍·김기영 1991). 한편 정책적 기반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말하며 주로 조세감면,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다(이만우·노상환 2002)(이성근 외 2003).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기반이 잘 조화된 지역이 기업입지로 적절한 곳이다.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에서보다 기업입지요인이 훨씬 다양하며 거시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적용된다. 우선 국가 선택에 있어서는 시장규모, 시장성장성, 무역장벽, 정치안정,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방성, 재정 인센티브, 노동관계, 언어와 문화, 노동비용, 조세제도, 교육수준 등을 고려한다(Asiedu 2002)(변용환 2008). 대부분의 국제 연구에서는 조세, 규제, 자

〈표 1〉 기업의 입지결정요인

입지결정요인	내 용
· 자연환경	· 깨끗한 공기와 물(반도체) · 깊은 수심의 해안(조선)
· 인력	· 기술인력, 숙련, 비숙련 기능인력의 확보 및 유지 가능성
· 기술	· 대학 및 기술연구소, 산학연 네트워크, 업계와의 연계 가능성
· 정보	· 경영정보 획득 용이성 · 대정부업무의 효율적 처리 가능성
· 산업연관	· 주변지역에서 부품 및 재료 조달의 용이성
· 배후도시	· 종업원이 정착할 수 있게끔 배후도시의 여건 조성 정도
· 판매시장	· 판매시장과의 인접정도
· 수송인프라	· 항만, 도로, 공항, 철도 등 교통수단과의 연계 용이성
· 전력 · 용수	· 전력 및 용수공급의 양과 질
· 지가	· 공장부지의 확보 가능성 · 공장부지 가격의 저렴성
· 정책	· 조세, 금융, 등의 지원정도 · 지자체의 유치인센티브 부여 정도

자료: 변용환, 2007, "제조업 투자유치 연구: K도를 중심으로", K발전연구원

본조달, 인플레이션, 환율, 부패, 노동유연성, 투명성 등이 공통적으로 대표적인 기업입지 경쟁력으로 나타나 있다(Schiffer · Weder 2001)(Hallward-Driemeier et.al 2003)(Doller et al. 2003)(Bastos · Nasir 2004)(Crain 2005)(최기호 2007)(변용환 2007)(전태영 · 변용환 2006)(이성봉외 2005).

국가를 선택한 후, 지역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기업환경요인으로는 요소투입비용, 요소구득가능성, 시장입지, 자치단체의 태도, 교통, 인프라, 생활환경, 재정인센티브, 지역 내 교육수준 등이 있다(박현수 2005)(방비석 2005)(차미숙 · 정윤희 2002). 외국기업이 투자대상 국가를 한국으로 선택하더라도 국내의 특정 지역이 외국기업 투자대상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기업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기업환경개선노력이 필요하다(제주발전연구원 2006)(권영철 2005).

## 2.2 투자유치 인센티브

### 2.2.1 인센티브의 배경

기업은 기업 활동에 가장 유리한 입지여건을 가진 곳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구, 경제상황 등의 기업유치를 위해 중요한 환경 여건들은 장기간 노력해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환경적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은 기업유치를 하기 힘들다. 기업유치를 원한다면 불리한 환경을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각종 수단이 필요하다. 기업유치 환경여건이 불리하더라도 인센티브 등 각종 기업유치 정책을 사용하여 기업유치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 1990년 이후 유럽에서 미국의 기업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나라는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는 자체 시장이 적고, 기존의 산업인프라가 열악하고, 유럽 시장의 변방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를 제반 여건이 서부 유럽에서 가장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기업유치의 힘은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

〈표 2〉 기업투자입지경쟁력 요인 제반 연구

연구자	연구방법	기업입지 경쟁력강화(또는 장애) 요인들
Roger 1998	문헌연구	노동조건, 외부경제, 자본, 토지건물, 환경, 정부정책, 원재료, 교통, 시장, 에너지, 인프라
Schiffer · Weder 200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장애요인 차이분석	조세와 규제, 자본조달, 인플레이션, 환율, 부패, 범죄, 인프라
Asiedu 2002	외국인직접투자(FDI) 요인조사	시장규모, 시장성장성, 무역장벽, 정치안정,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방성, 재정 인센티브, 노동관계, 언어와 문화, 노동비용, 조세제도, 교육수준
Hallward-Driemeier et.al 2003	중국 기업투자환경 서베이	국제통합정도, 진입퇴출자유도, 노동시장 유연성, 금융, 정보기술
Doller et al. 2003	중국기업투자환경 분석	인프라스트럭처, 진입퇴출, 인력, 기술, 노동시장유연성, 조세, 투명성
Bastos · Nasir 2004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기업투자환경 분석	지대, 인프라스트럭처, 경쟁
The World Bank 2005	비용요인과 리스크요인으로 나누어 분석	규제, 뇌물, 인프라, 정책불확실성, 조세, 노동숙련도, 금융
대우경제연구소 1992	기업입지동기 및 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입지동기: 비용절감, 수익확대, 생산편의, 규제 입지결정요인: 자연환경, 인력, 기술, 정보, 연관산업, 배후도시, 판매시장, 수송인프라, 전력용수, 지가, 지자체 정책
차미숙 · 정윤희 200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요인 연구	요소투입비용, 요소구득가능성, 시장입지, 자치단체의 태도, 교통, 인프라, 생활환경, 재정인센티브, 지역내 교육수준
이성근외 2003	경북지역 지역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 연구	입지적기반: 집적도, 판매시장, 노동시장, 교통, 혁신분위기, 정보통신, 입지지역 이미지, 지가 제도적 기반: 지원정책
이병기 2005	기업투자환경지수를 사용하여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기초(토지, 노동, 자본), 정보·기술, 인프라·사업환경, 지방정부정책
박재곤 · 이원빈 2005	수도권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연구	- 지방투자 애로요인: 정보부족, 인력확보곤란, 시장과의 거리, 협력업체 부족, 생활시설미비 - 지방의 기업입지경쟁력 강화방안: 인센티브확충, 기반시설 확충, 인력지원, 산업용지, 자금지원
최인혁 · 오동욱 2005	충남지역에서의 기업 입지환경 분석	- 지원정책요인: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 집적요인: 관련산업집적, 산학연, 혁신분위기 - 입지기반: 교통, 공단인프라, 지가 - 한계요인: 지식노동력, 지역판매시장
금성권 2006	부산지역 투자인센티브 강화방안 연구	종합지원체계, 파격적 인센티브, 클러스트형성, 행정서비스, 홍보체계,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강화
제주발전연구원 2006	제주경제특구에서의 투자유치방안	세울 대폭 인하, 토지비축, 인허가절차 간소화, 탄력적인 보조금 제도, 마케팅 능력, 공무원 역량, 지역이미지, 고급인력, 리더십

복지수준을 국민들이 감내하면서 기업유치에 쏟아낸 인센티브에 있었다. 1990년대 초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파격적인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보조금 등 각종 재정 지원, 그리고 아직까지 서유럽 어느 나라도 실천 못하고 있는 낮은 법인세율 10%가 외국인 투자를 아일랜드에 끌어드린 원동력이었다. 기업투자관련 환경여건이 열악하더라도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기업유치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아일랜드 산업개발청 2009).

기업은 수익이 예상되면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기업은 투자성과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므로 기업의 투자 본능에 맡기는 것이 사회 전체의 투자효과를 거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두어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적 자금으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이해관계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사회의 총 경제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도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가 내 지역 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인센티브 경쟁을 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피구(A. Pigou)의 후생경제학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설명되어질 수 있다(UNCTAD 1995). 투자를 통해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부경제효과(positive externalities)의 긍정적인 면을 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여 기업에게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업은 투자를 주저할 수가 있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경제효과는 규모의 경제, 신기술 및 신지식 창출, 근로자기능향상, 고용효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매출행위를 통해 일어나는 이익에 한정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투자함으로써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 기업에 귀속되어지는 이익이 아주 적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투자를 통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사적 효과(private effect)가 사회가 누리는 공적효과(public effect)보다 적으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거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누리는 '사적 수익율'(private rate of return)과 해당 지역 사회가 누리는 '사회적 수익률'(social rate of return)간 차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를 투자인센티브를 통해 보상해 주어야 해당 지역사회의 기업투자가 최적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Brewer·Young 1998).

유치지역에서 제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산업인프라 때문에 투자기업이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비용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다(UNCTAD 1995). 토지매입비, 교육훈련비, 고용보조금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지원하는 각종 투자인센티브는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별 기업유치 인센티브로 사용되고 있다. 투자유치를 위한 각 지역별 과당 경쟁은 해로운 투자유치 인센티브 경쟁(harmful investment incentive competition)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보조금이 없더라도 어차피 설립해야 하는 현지 자동차 생산공장을 각 주간 유치경쟁을 유도하여 주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른바 '해로운 투자유치 인센티브 경쟁' 때문에 미국의 알라바마 주정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공장지대의 수용, 근로자 훈련 프로그램 등 도합 3억 1천 8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안하고자 현대자동차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가 사적수익율과 사회적 수익률의 차이를 미국의 주별 '해로운 투자유치 인센티브 경쟁'을 통해 완화시킨 사례이다. 과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그 반

대급부가 있게 마련이다. 법인세 10%, 각종 보조금 지급 등 1990년대 당시 유럽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인센티브를 걸고 기업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 아일랜드는 기업유치비용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유럽에서 사회복지부문에서의 지출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2009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별 기업유치 인센티브 경쟁이 심하지는 않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정한 세제, 재정적 인센티브 틀에 준해서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문남철 2006). 그러나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지역이 인지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로는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둘러싼 과당경쟁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는 이른바 '헤로운 기업유치 인센티브 경쟁'을 촉발시켜 각 지역별 재정경제력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조세인센티브는 2009년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정해준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편, 각종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의 부담에 따라 중앙정부가 매칭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일수록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얻어내어 기업유치에 더 좋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다(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 2007). 한편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대응보조금을 얻을 근거가 되는 종자 자금이 없어 기업유치를 하기 힘든 입장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서 EU에서처럼 지역 낙후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중앙정부보조금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박재곤·이원빈 2005).

## 2.2.2 투자인센티브의 종류

1980년대 후반부터 각 국가 또는 지역이 경쟁적으로 기업유치를 시작하면서 제공되기 시작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는 조세인센티브(fiscal incentive)와 재정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 사회간접자본 인센티브, 경영·행정지원인센티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조세인센티브는 대부분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보조금 등을 직접 제공하는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후진국일수록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금 부분을 감면해 주는 방법을 선호한다. 이를테면 중국은 2007년까지 외국기업에 15% 국내기업에 33%의 소득세를 부과했었고, 2009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을 개발이 덜 된 내륙지역에는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미 기존의 기업활동이 왕성한 선진국에서는 외국기업에 특혜적인 조세정책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치대상인 외국기업과 기존 국내기업 사이에 세제상 차이를 두는 것은 동일시장내 기업 간 공정경쟁의 틀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기업유치 당시 한 번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유치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보다는 지역별로 개별적인 보조금을 주어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아직까지 세제혜택과 보조금혜택을 모두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제감면과 보조금혜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하에 아직 지역 간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거의 동일하나, 향후로는 지자체의 결단과 재정력에 기반을 둔 재정인센티브는 지역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투자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세인센티브의 대표적 형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UNCTAD 1995). 일반적으로 투자 이후 5년 정도 제공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0-25년까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기업유치를 위해 조세감면인센티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세를 3년 동안 면제해 주고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혜택을 준다. 또한 각종 지방세 감면이 뒤따른다(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 2008). 조세지원방법도 다양하다.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국세를 5년 동안 면제해주고 그 이후 2년 동안 50%를 감면해 주는 등 가장 많은 조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방법도 다양하다. 조세감면기간동안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을 받기위해 조세면제기간을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조세면제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미래에 이익발생시점에서 상계시켜줄 수도 있다.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거나 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회계원칙 상의 예외를 두어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고정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또는 즉시 상각 등의 방법을 인정하면 유치기업이 자신의 편리에 맞춰 과세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김승진 1999).

둘째, 재정인센티브는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재정상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이며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외자유치에 모두 사용되고 있다. 자본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 현지인들의 직업훈련비용, 고용비용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보조금 이외에도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해주거나, 지자체가 신용보증을 서서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 인센티브가 있다.

셋째, 사회간접자본 인센티브로서 사회간접자본

을 잘 구축해 주어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운영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인센티브이다. 이를테면 영국에는 각 구마다 기업장려지구를 비롯한 각종 기업집적시설인프라가 있다.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조성 붐을 일으키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 기업유치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지역, 기업도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유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기업집적단지 내에서는 건물, 통신, 전기, 수도, 임대료 등을 시장가격이하로 공급하는 인센티브가 많이 제공된다.

넷째, 경영·행정지원인센티브도 중요한 인센티브이다. 특히 기업가치 중심이 생산에서 마케팅·브랜드가치 쪽으로 전이됨에 따라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서비스는 기업유치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프로젝트의 수행 및 관리 투자에 대한 사전조사, 시장정보 파악, 인적 자원조달, 원자재 공급 알선, 생산공정기술 제공, 마케팅 및 홍보컨설팅, 판로 제공, 교육훈련 및 재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적 경영 지원서비스는 중요한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윈스톱 맞춤형 경영·행정서비스는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 III. 연구모형

#### 3.1 기업유치 환경요인과 정책요인

기업유치와 관련된 여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외국인 기업 유치와 관련된 여건은 무역장벽, 정치안정, 외국인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방성, 노동유연성, 언어와 문화, 노동비용, 국

제통합정도, 진입퇴출자유도, 투명성, 규제, 뇌물, 정책불확실성 등 대단히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일이므로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지역에서의 기업유치노력과는 거리가 있어 여기에서는 제외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기업을 유치할 지역의 노력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틀을 연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기존의 기업유치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업유치여건들 중에서 국내 지역의 특성 및 노력과 관련된 여건들만을 기업유치요인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경쟁상태에 있는 각 지역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기업유치자원의 요인별 배분순위를 정해 보는 것이 해당 지역의 기업유치전략을 수립하는데 현실적인 도

움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유치여건들을 크게 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환경요인이란 특정 지역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거나 변화를 위해서 장기적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의 기업유치여건이다. 이를테면 지역의 인구나 경제력은 대표적 환경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요인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업에 대한 태도, 지역 이미지, 경제력, 부동산 가격, 생활인프라, 인력, 교통, 산업기반시설, 자금조달 편리성, 부동산가격상승가능성의 10개를 사용했다. 한편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요인은 해당 지역의 단기적 또는 중기적 노력에 의해 개선이 가능한 기업유치여건을 말한다. 홍보활동 등이 대표적 정

〈표 3〉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환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의 기업에 대한 태도 내지는 호감도</li> <li>- 기업창업 대상 지역의 이미지</li> <li>- 창업대상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력</li> <li>- 창업대상지역의 저렴한 부동산가격</li> <li>- 직원자녀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문화 의료 등 생활 인프라</li> <li>- 필요한 인력의 조달 용이성<sup>1)</sup></li> <li>- 창업대상지역의 철도 도로 등 교통상황</li> <li>- 산업단지, 기업집적시설 등 산업기반시설</li> <li>- 자금조달 편리성<sup>2)</sup></li> <li>- 공장용지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 가능성</li> </ul>
정책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li> <li>- 지방자치단체의 창업보조금(정책자금/부지구입대금 지원 등)</li> <li>- 기업운영 시 저리 금융지원/정책연구개발자금 등</li> <li>-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li> <li>-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li> <li>-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조달 용이성<sup>3)</sup></li> <li>- 공단 인프라, 기업집적시설(동중기업클러스터)등의 적합성</li> <li>- 마케팅/판로개척/ 경영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li> <li>- 연구개발 인프라 (기술지원, 지원시설, 산학연 네트워크 등)</li> </ul>

1)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면에서의 인구 및 인력수급 가능성을 말한다. 생산가능년령층의 인구규모가 중요하다.

2) 지역에서의 금융기관 활성화 정도 등 전체적인 금융환경의 다양성과 활성화 정도를 말한다.

3)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단기적 인력 조달 용이성을 말한다.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잘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책요인이다. 특정 지역이 주어진 시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책요인에서의 개선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요인으로서는 홍보활동, 보조금, 금융지원, 세계감면, 공무원의 서비스, 인력교육 및 조달, 인프라적합성, 연구개발인프라, 경영지원의 9개를 사용하였다.

### 3.2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요인별 개선필요강도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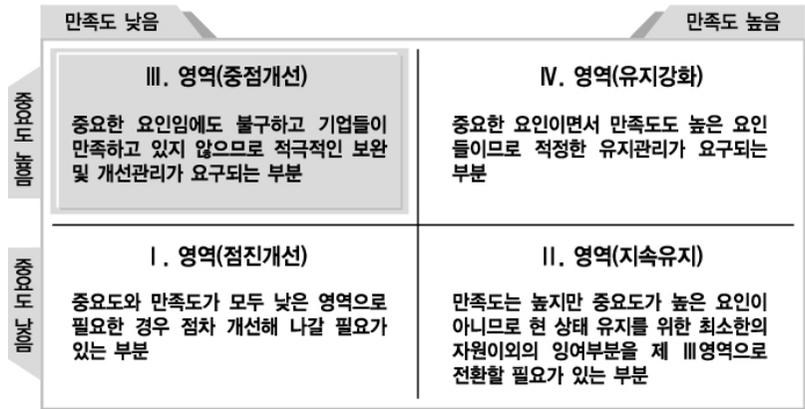
#### 3.2.1 효율적 자원배분 방법의 전제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요인을 향상시킬 수는 없으므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기업유치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여 그 차이가 클수록 개선필요강도가 큰 요인으로 인식하여 기업유치자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인들이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인의 만족도가 낮은 요인의 경우, 즉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가 부정적으로 큰 경우는 기업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유치 관련 자원배분의 우선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즉 부정적인 차이가 클수록 해당 요인의 개선필요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데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자원배분상의 낭비요인이 있는지를 의심해야 한다. 만약 중요하지 않은 요인에 잉여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면 자원투입을 줄여야 한다. 중요도가 높는데 만족도가 높으면 그대로 유지관리하면 되고, 중요도가 낮으면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가 적은 요인일수록 자원배분이 적절히 되고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3.2.2 기업유치요인별 개선필요강도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유치요인별 개선필요강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kert의 5점 척도(scale)를 이용하여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정책요인에 대한 각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순위를 파악하였다. 둘째, 이러한 환경요인과 정책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업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나 불만이 높은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즉 기업유치요인 중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업유치 정책 자원을 집중시켜야 하고, 그 차이가 반대방향으로 나타나면 정책자원 집중도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유치자원의 요인별 배분필요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차원적 그리드(grid) 모형을 사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리드모형은 쉽게 시각적 분석을 해 주므로 본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사인 기업유치요인별 개선필요강도를 편리하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아래 그림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차원적 교차분석모형이다. 그리드의 축은 응답한 점수의 평균을 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집단별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어, 중요도축 및 만족도축 모두 5점 척도의 절대평균인 3을 사용했다. 각 요인은 중요도와 만족도의 점수에 따라 모형내에서의 위치가 정해진다. 이를테면 특정요인이 III영역에 포함된다면 그 요인은 기업유치를 위해 중요하지만 만족도는 낮은 요인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요인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점개선영역으로 분류되어진다. 그리고 그 강도는 중심선 내지는 교차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강해진다. I 영역은 중요도 및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자원배분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진개선영역이다. II



〈그림 1〉 기업유치요인별 개선필요강도 분석 모형

영역은 지속유지영역으로서 중요도는 낮는데 만족도가 높아 과잉 자원배분이 아닌지를 의심해야 하는 영역이다. III영역은 중점개선영역으로 부르며 중요도는 높는데 만족도가 낮으므로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영역이다. IV영역은 유지강화영역으로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함께 높은 영역이다. 기업유치자원은 중점개선영역인 III영역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3.2.3 집단별 기업유치요인 개선필요강도의 측정

기업유치요인들의 개선필요강도가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개선해야할 기업유치요인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 부문별, 집단별 성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기업유치요인별 개선필요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대상, 지역, 업종, 규모 등 4가지의 부문을 도입하고, 부문별로 적정기준을 사용하여 집단을 세분화한 후, 부문별 구분에 의한 집단별 특성에 따라 기업유치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알아보았다.

## IV. 결과분석

### 4.1 조사대상 분석

본 설문조사의 총 응답 수는 348개이며 전문가 113명과 기업 235개로부터 수집되었다. 전문가는 경영대학 교수, 기업지원기관 근무자, 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35개의 기업 수는 K도<sup>4)</sup>에서의 종업원 15인이 넘는 제조기업을 전수 조사를 목적으로 조사하여 나온 숫자에다가 K도로 이전을 희망한 기업체수를 합친 숫자이다. 15인 미만업체는 기업유치에 따른 장점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방적 지원요구가 많이 나오는 인큐베이터 위치에 있는 기업이 많으므로 제외하였다. 제조업체로 공장등록이 되어있으나 폐업, 휴업 등을 한 기업들이 상당 수 있으므로, 이 숫자는 K도에서 1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총수에 근접하고 있는 숫자로 볼 수 있다. K도 전역을 A, B, C, D 4가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성, 창업기업, 이전기업, 전문가

4) 기업유치환경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이 공개되면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고유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집단으로 구분되는 조사대상별 특성, 기업규모에 따른 특성, 업종에 따른 특성 등 4가지 차원의 섹터별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sup>5)</sup>

4.1.1 지역별/이전여부에 따른 분포

본 조사에서 사용된 235개의 기업은 수도권 등 외지로부터 K도로 이전한(할) 기업(이하 '이전기업') 59개, K도에서 창업한 기업(이하 '창업기업') 176개로 구성되어 있다. 권역별 기업분포는 A권역 44개, B권역 97개, C권역 52개, D권역 31개로 되어 있다.<sup>6)</sup> 창업기업<sup>7)</sup> 176기업은 A권역 37개, B권역 64개, C권역 48개, D권역 27개로 분포되어 있어 B권역의 창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기업<sup>8)</sup> 59개는 A권역 7개, B권역 33개, C권역 4개, D권역 4개로 분포되어 있다. 외부로부터 이전한 기업 중 과반수 이상이 B권역에 집

중되어 있는 반면, C권역과 D권역은 수도권 등 외지로부터 기업 이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전기업 총 59개중 40개가 수도권에 가까운 A권역과 B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가 기업이전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K도내 창업기업은 176, 외부로부터 이전해 온 기업의 수는 59명이다.

이전기업의 수는 그 지역의 기업입지 매력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B권역은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59개의 기업 중 33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유치가 활발한 반면, 외부로부터의 이전기업이 없는 권역도 있다.

4.1.2 업종별 분포

조사대상 235개의 기업 업종별 분포는 음식료품

〈표 4〉 유치기업의 지역별 분포

권역구분		전체		창업기업		이전기업	
		빈도	%	빈도	%	빈도	%
지역	A권역	44	12.6	37	21.0	7	11.9
	B권역	97	27.9	64	36.4	33	55.9
	C권역	52	14.9	48	27.3	4	6.8
	D권역	31	8.9	27	15.3	4	6.8
	K 외 지역 <sup>9)</sup>	11	3.2	-	-	11	18.6
조사 대상	창업기업	176	50.6	176	100.0		
	이전기업	59	17.0			59	100.0
	전문가	113	32.5	-	-	-	-
합계		348	100.0	-	-	-	-

5) K도에서는 제조업체의 수가 워낙 적어 모든 섹터별로 정규분포를 가질 수 있는 기업체수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일부 집단의 분석에서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이 저하되는 점이 다소 있다.  
 6) 특정 지역에 대해 기업유치와 관련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특정권역의 고유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7) 창업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여 계속 사업해온 기업이다.  
 8) 이전기업은 K도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K도로 이전해 온 기업을 말한다.  
 9) K도외지역은 K도로 이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수도권기업이다.

60개(25.5%), 의료정밀광학기기 25개(10.6%), 비금속광물제품 23개(9.8%), 고무플라스틱제품 19개(8.1%), 조립금속제품 16개(6.8%), 자동차운송장비 15개(6.4%), 전자부품통신장비 10개(4.3%)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음식료품 기업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 D권역의 제조기업 중 대부분이 수산음식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편리를 위해 그 성격에 따라 나누면 음식료품 기업군, 일반적인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제조업 기업군, 전통 제조업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기업군의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4.1.3 기업규모

조사대상기업의 회사 설립기간은 4년 이하가 20.9%, 5-9년이 28.1%, 10-19년이 25.5%, 20-29년이 16.2% 30년 이상이 9.4%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종업원규모는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49인 이하가 156개(66.4%), 중기업인 50-299인 경우가 63개(26.8%), 대기업인 300인 이상이 16개(6.8%)이다. K도에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기업의 수가 너무 적어 더 이상의 표본 확보가 불가능했다. 20억 원 이상의 매출기업은 150개(63.8%), 5-20억이 66개(28.1)로서 조사대상 기업들 모두 제조업체로서의 매출액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기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매출액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면서 종업원 수와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용창출이 기업유치의 가장 주된 목적임을 감안하여 종업원 수를 기업규모에 대한 프록시로 사용하였다.

## 4.2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 4.2.1 환경요인 중요도와 만족도의 의미

기업유치 환경요인이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나, 해당 지역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거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의 요인을 말한다. 환경요인 중요도란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기업이 생각하는 환경요인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여건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유치를 원하는 지역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중요도 순위가 높은 환경요인 위주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환경요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결점을 감안하여 기업유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기업유치환경요인 만족도란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환경요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정도이다. 만족스러운 환경요인은 발전 유지시켜 나가되 불만족 요인은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단 환경요인 대부분이 그 성격상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거나 개선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업종별, 규모별 등 각 부문에 있어 기업유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참고요인으로서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도는 높는데 만족도가 낮은 환경요인이 기업유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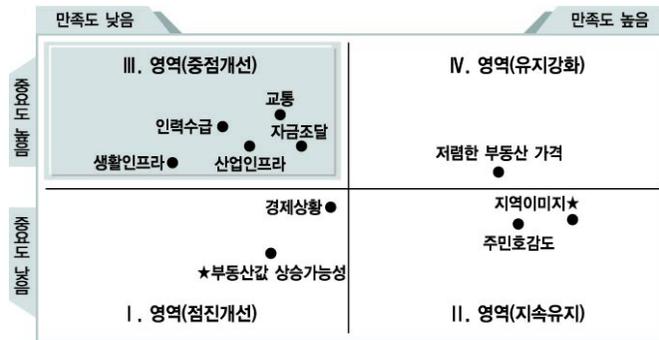
### 4.2.2 K도 전체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K도의 기업유치 환경요인 중에서 가장 자원투입이 많이 되어야 할 중점개선영역인 제Ⅲ영역에 속하는 요인들은 교통, 인력수급, 생활인프라 및 산업인프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도 중점개선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위치가 중심점에 가까워 개선 필요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 I점진개선영역에는 부동산값 상승가능성<sup>10)</sup>이 있고, 자원투입을 할 필요가 없는 II지속유지영역에는 지역이미지와 주민 호감도가, 그냥 유지하면 되는 IV 유지강화 영역에는 저렴한 부동산 가격과 경제상황이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노력의 핵심은 III 중점개선 영역에 있다.

#### 4.2.3 조사대상별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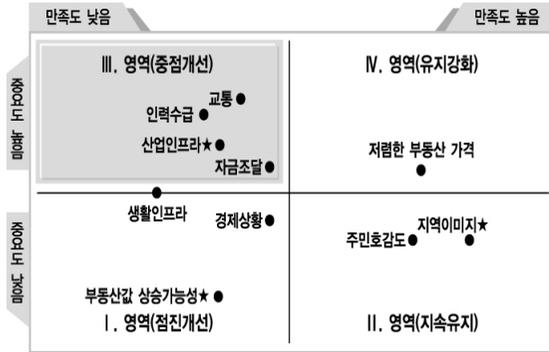
조사대상은 창업기업, 이전기업 및 전문가의 세 집단이다. 창업기업은 K도에서 창업하여 성장한 기업이고, 이전기업은 외지에서 K도로 이전한 기업이며,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등 일반적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다. 상당 부분의 지원책이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간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점개선영역내에서 분



\* P < 0.05에서 응답자의 기업유치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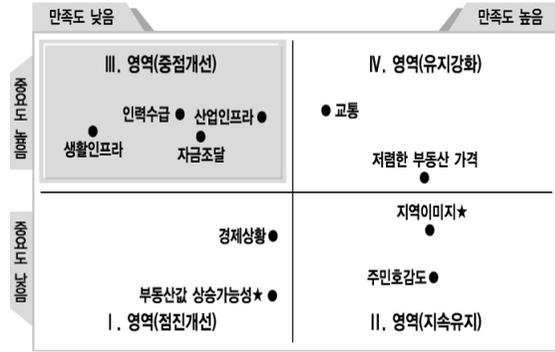
〈그림 2〉 K도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sup>12)</sup>

- 10) 전체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환경요인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환경요인 중 공장용지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 가능성이 가장 유의적이고 회귀계수도 높게 나타났다. 공명정대해야 하는 공식적인 대담과 내면적 만족도의 불일치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 11) 환경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환경요인 10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유의적인 결과를 보인 변수이다. 즉 유치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중요도가 빠진 상태에서 만족도만으로 회귀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종합적 결론을 보여주기 어려워 참고 지표로서만 사용하였다. 중요도와 만족도를 함께 사용하여 Grid분석한 것은 종합적이고 명시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만족도만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한 것은 중요도나 만족도의 크기에 관계없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요도 또는 만족도의 크기와도 관계없이 나온 결과이다. 환경요인 전체에서 부동산값 상승 및 지역이미지만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은, 응답자가 다른 요인들은 거의 변화가 불가능한 주어져 있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만족도 변화와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 두 요인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자신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회귀분석은 응답자의 내면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부동산 가격상승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중요하다고 대답하기가 공명정대하지 못한 느낌이 있어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대답했을 수 있으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요인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귀분석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난 요인은 기업인의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명시적인 중요성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책당국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 중요도와 만족도를 명시적으로 물어보아 종합적으로 분석한 Grid분석에서 중점개선영역에 속한 요인이 만족도만을 척도로 하여 살펴본 회귀분석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개선필요강도의 의미를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족도만을 사용한 회귀분석은 응답자 개인의 내면적 심리를 알아보는 보조적 해석도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 계속되는 다른 부분에서의 회귀분석 결과도 유사한 방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12) Grid모형에서 가장중요한 일은 중점개선영역인 III영역에 속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III영역내에서는 축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개선필요강도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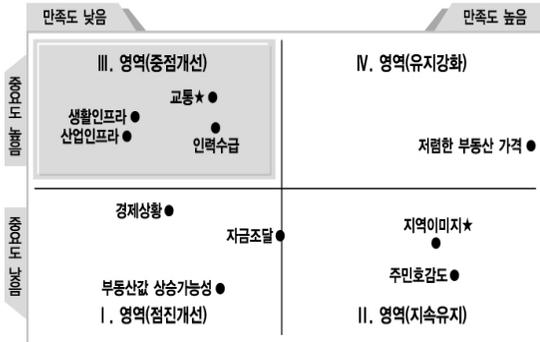


\* P < 0.05에서 응답자의 기업유치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림 3〉 창업기업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4〉 이전기업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5〉 전문가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석해 보면 창업기업집단에서는 인력수급이 개선필요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교통 및 산업인프라로 나타났다. 이전기업집단에서는 생활 인프라와 인력수급이 개선필요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금조달이다. 전문가집단에서는 생활인프라와 인력수급, 교통, 인력수급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별로 공통된 점도 있지만 약간씩 다른 점도 있다. 교통은 창업기업에는 중점개선영역인 제 III영역이지만 이전기업에게는 큰 신경을 쓸 필요 없는 유지강화 영역인 IV영역이다. 이전기업은 교통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생활에 익숙한 창업기업에게 생활 인프라는 개선필요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이전기업에게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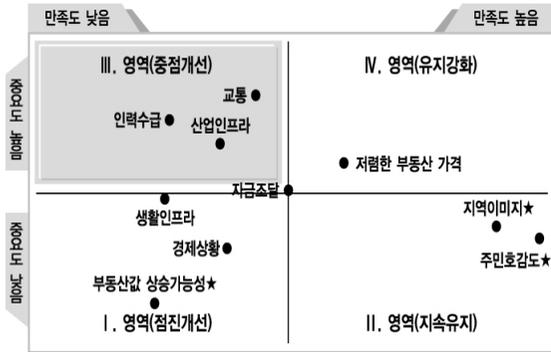
요하지만 가장 만족도가 낮아 개선필요강도가 가장 높은 요인이다.

#### 4.2.4 권역별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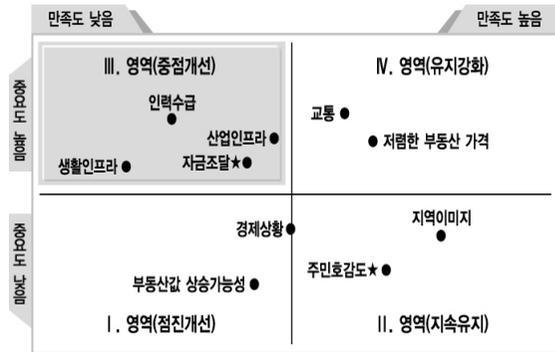
중점개선영역을 살펴보면 A권역에서는 인력수급이 개선필요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교통 및 산업인프라이다. B권역에서는 생활 인프라, 인력수급, 자금조달의 순으로 개선필요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C권역에서는 교통이 가장 개선필요강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 인력수급 및 산업인프라이다. D권역에서는 산업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통 인력수급이다. 권역별로 중점개선영역에 포함된 요인의 종류는 서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개선필요강도 순위는 약간씩 다르다. 교통요인은 전 지역에서 중점개선영역에 포함되나 수도권과 가깝고 고속도로 연결성이 좋은 B권역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유지강화 영역에 속하고 있다.

#### 4.2.5 업종별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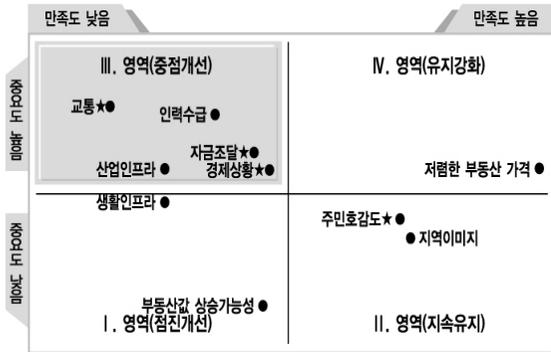
음식료품기업의 경우에는 교통, 생활 인프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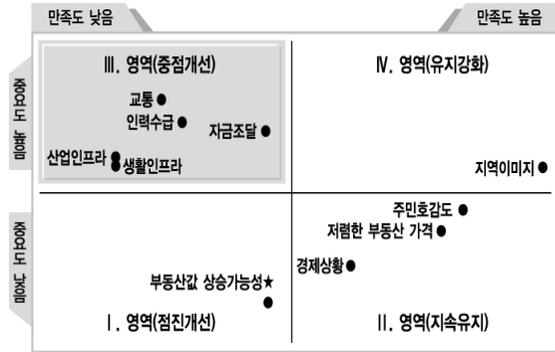
〈그림 6〉 A권역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7〉 B권역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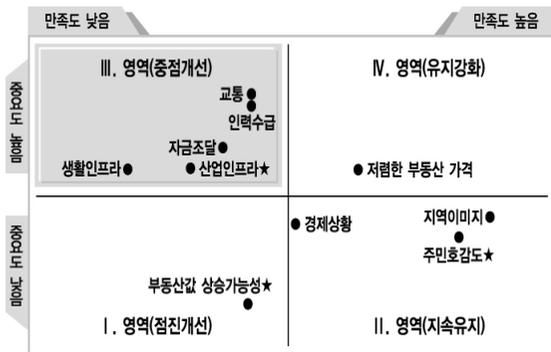
〈그림 8〉 C권역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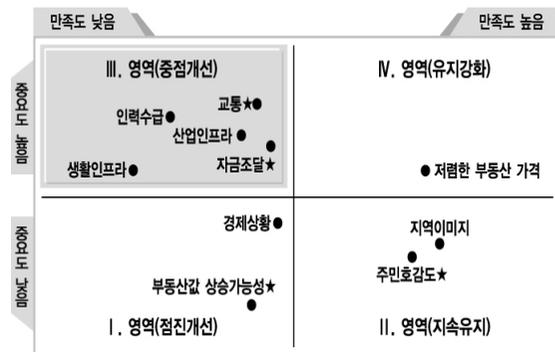
〈그림 9〉 D권역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개선필요강도가 가장 높고 인력수급, 산업인프라, 자금조달의 순이다. 제조기업은 인력수급이 가장 높고 교통, 산업인프라, 생활 인프라의 순이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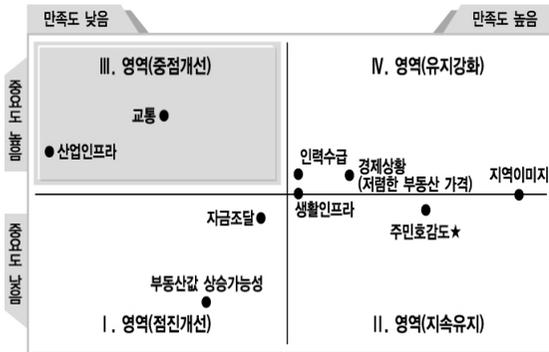
타제조업기업은 산업인프라, 교통이 높다. 음식료품 및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업유치요인이 중점개선영역으로 상당수 망라되는데 비해



〈그림 10〉 음식료업종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11〉 제조업종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12〉 기타제조업종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기타제조업에서는 산업인프라 및 교통만 중점개선 요인에 속해 있다. 기타 제조업은 정비업종 등 토착형 서비스관련 제조업이 주종이라 일반적인 기업 입지여건과는 달리 생활 인프라, 자금조달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애로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4.2.6 기업규모별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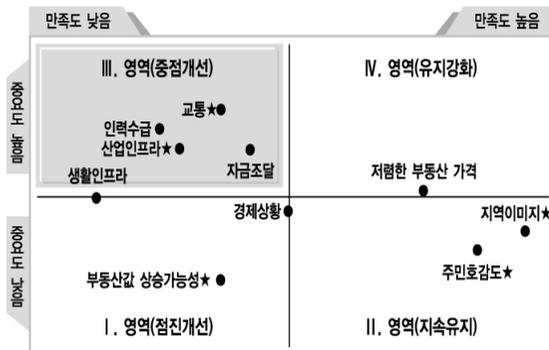
기업규모별로는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점개선영역에는 인력수급이 가장 개선필요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생활인프라, 산업인프라, 교통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함께 중점개선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자금조달은 그 만족도가 모든 부문에서 거의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50-299인 고용기업에서 생활인프라의 중요성이 개선필요강도가 특별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이러한 중점개선요인들이 규모가 작은 기업군에 비해 그 수가 적고 교차점으로부터 가깝게 형성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체 해결능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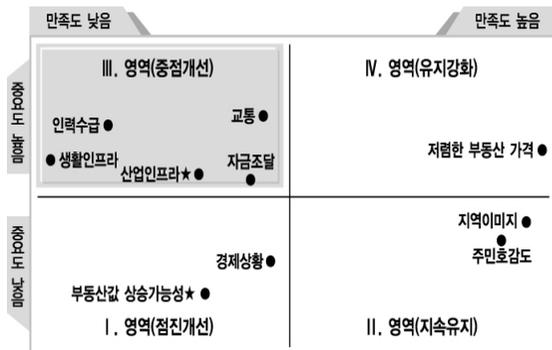
### 4.3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 4.3.1 정책요인 중요도와 만족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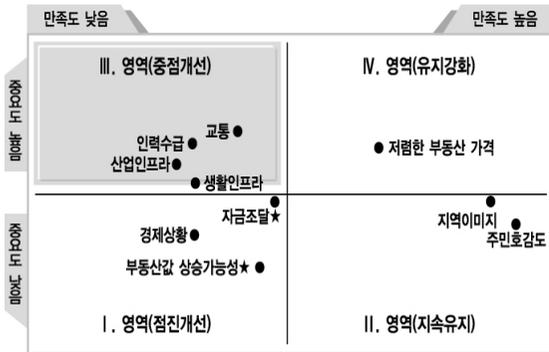
기업유치 정책요인이란 해당 지역의 정책적 노력에 의해 단기 또는 중기에 걸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환경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단기 내지는 중기에 걸쳐 집중적 노력을 할 의미가 있는 기업유치여건들이다. 우선 중요한 정책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예산, 인력 등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요인에 한정된 자원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책요인 만족도란 기업이 해당지역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림 13〉 50인 미만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14〉 50-299인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15〉 300인 이상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정책요인은 개선이 어려운 환경요인과는 달리 성격상 정책에 의해 개선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이 지역의 노력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인이다. 기업유치에 중요한 정책요인인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요인의 경우, 즉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가 부정적으로 큰 경우에는 지역정책당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기업유치 관련 자원배분의 최우선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 4.3.2 K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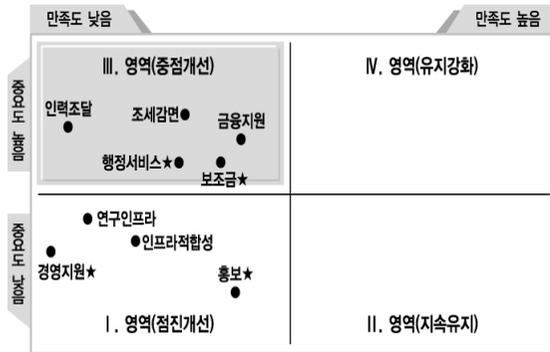
K도 기업유치 정책요인 중에서 가장 자원투입이 많이 되어야 할 제Ⅲ영역에 속하는 요인들은 인력양성 및 조달이고 그 다음으로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행정서비스, 금융지원, 보조금의 순이다. 상대적 만족도가 높은 Ⅱ영역과 Ⅳ영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요인이 없고 개선요구영역(Ⅰ영역 및 Ⅱ영역)에만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경영의 일반적인 속성상 정책당국에 대한 불만사항이 누적되고,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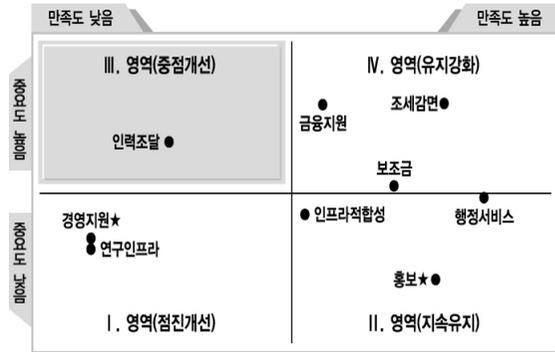
\*  $P < 0.05$ 에서 응답자의 기업유치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sup>13)</sup>

〈그림 16〉 K도의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13) 정책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정책요인 9개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인 변수들이다. 즉 유치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요인들이다. 유의적으로 나타난 행정서비스, 보조금, 홍보, 경영지원은 해당지자체의 노력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요인들이다. 반면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인력조달, 인프라적합성, 연구인프라,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은 중장기적 노력이나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지역의 노력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기업인이 만족 내지는 불만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유의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책요인은 환경요인과는 달리 지역의 노력에 의해 개선 가능한 부분이 많으므로 기업인들이 지역정책당국에 대해 예민한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하 부분별 정책요인 만족도 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도 유사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7〉 창업기업 기업유치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18〉 이전기업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장 좌측에 있는 요인이 불만의 강도가 큰 요인이다.

#### 4.3.3 조사대상별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중점개선영역을 보면 창업기업에서는 인력조달이 개선필요강도가 가장 높고, 조세감면, 행정서비스, 보조금, 금융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기업에서는 인력조달만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집단에서는 행정서비스, 인프라적합성 및 인력조달이 강조되었다. 창업기업은 중점개선영역인 제 III영역에 인력조달을 비롯한 많은 요인들이 있는 반면, 이전기업은 제 III영역에 인력조달 하나밖에 없고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조금 등은 비교적 만족도가 중요도와 균형을 맞추는 유지 강화영역인 제 IV영역에 속해 있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영역의 요인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전기업은 기업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 반면 창업기업들에게는 일상적인 지원만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외지로부터 K도에 이전한 기업에 비해 K도 내에서 창업하여 성장한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전기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전보조금, 부지매입대금 지원, 종업원 급여 및 훈련보조금,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K도내에서 창업한 기존기업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하지만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 모두 연구 인프라 및 경영지원에 대해서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서비스, 인프라적합성, 인력조달 등 복합적이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개선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요인들에 대한 중점개선을 지적했다.



〈그림 19〉 전문가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 4.3.4 권역별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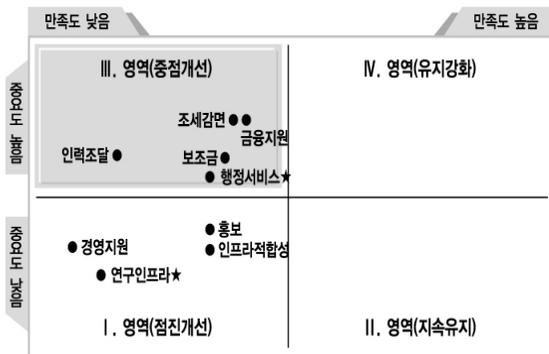
A권역에서는 인력조달이 개선필요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조금, 행정서

비스이다. B권역에는 인력조달, 행정서비스가 특별히 높고 조세감면, 금융지원의 순이다. C권역에서는 인력조달이 특별히 높고, 행정서비스, 조세감면, 금융지원의 순이다. D권역에서는 인력조달이 특별히 높고, 경영지원, 조세감면, 금융지원의 순이다. 권역별로 III. 중점개선영역에 포함된 요인의 종류는 서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요인들에서도 경영지원 및 연구 인프라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면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B권역에서 인프라 적합성 및 홍보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D권역은 다른 권역과는 달리 행정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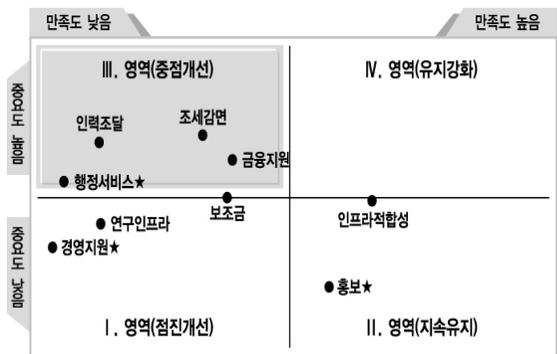
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권역별로 요인별 개선필요강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 4.3.5 업종별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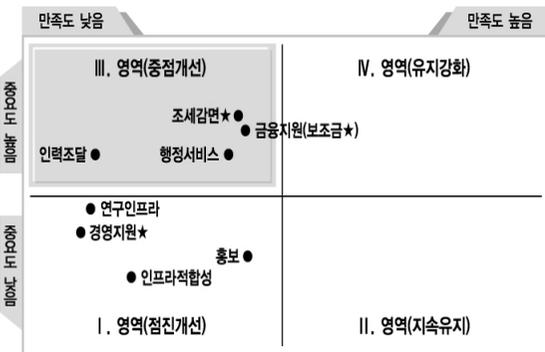
음식료품기업에서는 개선필요강도가 높은 요인이 많다. 인력조달이 가장 높고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조금, 행정서비스의 순이다. 한편 일반 제조업은 개선필요강도가 높은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인력조달이 가장 높고 행정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기타제조업기업에서는 금융지원이 가장 높고, 보조금, 인력조달의 순이다. 음식료품에서 모든 요인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일반 제조업에서는 조



〈그림 20〉 A권역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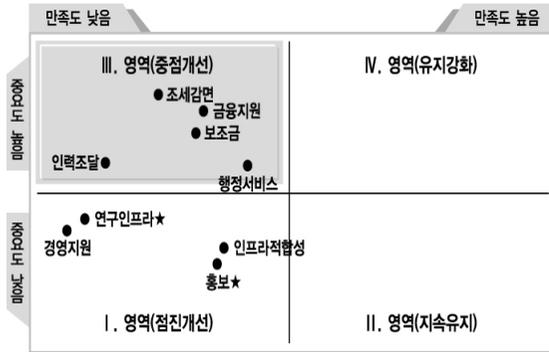
〈그림 21〉 B권역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22〉 C권역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23〉 D권역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24〉 음식료품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25〉 일반 제조업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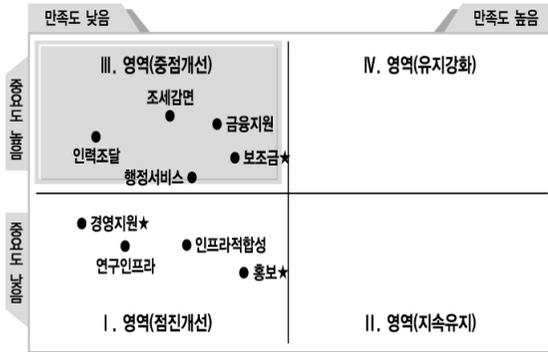
세감면, 금융지원 보조금, 홍보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음식료품은 수산물 가공기업이 대부분인데 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라 일반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정당국의 지원을 받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타제조업에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고 홍보 및 조세감면도 상대적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경영지원 및 연구 인프라는 모든 집단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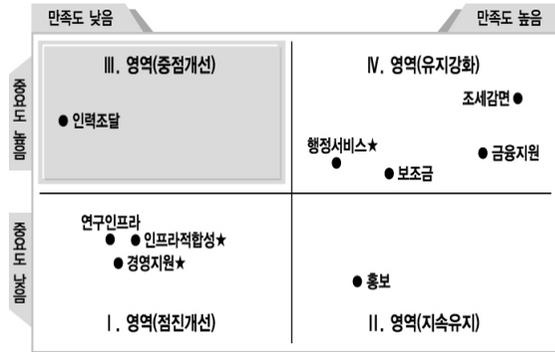
〈그림 26〉 기타제조업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 4.3.6 기업규모별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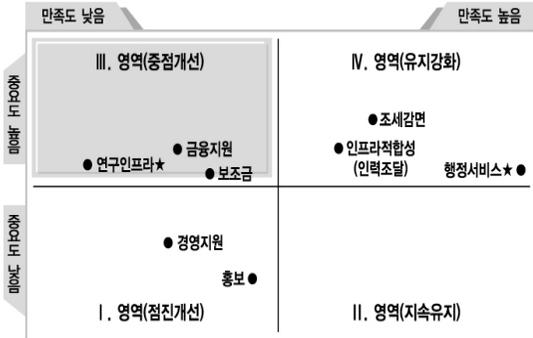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중점개선영역에 인력조달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조세감면, 행정서비스, 금융지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50-299인 기업에는 중점개선영역에 인력조달만 포함되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의 중점개선영역에서는 연구 인프라가 가장 높고, 금융지원, 보조금의 순이다. 종업원규모가 다른 기업군끼리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50인 미만 소기업에서는 모든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50-299인 중기업에서는 인력조달 하나만 중점개선영역에 포함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연구 인프라, 금융지원 및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중기업 내지는 대기업에 지원이 많든지, 또는 이들 기업이 이전기업과 중복되어서 지원이 많든지, 또는 소기업일수록 정책당국에 대한 의존적 자세가 강해서 일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효과가 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연구 인프라에 대해 불만족을 강하게 표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기업, 중기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조금 낮지만 연구 인프라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림 27〉 50인 미만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28〉 50-299인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그림 29〉 300인 이상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분석

## V. 요약 및 결론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업입지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에 필요한 요인별로 유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기업유치요인들을 선택하여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자원투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기업유치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기업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데도 현실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요인’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할 ‘중점개선요인’으로 정의하여 이러한 요인들을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평균값에 의한 중요도-만족도의 이차원적 단순통계로서 기업유치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분석 모형을 만들 수가 있었다.

둘째, 부문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개선필요강도가 높은 요인이 존재하였다. 즉 보편적 필요성을 가진 기업유치요인이 존재했다. 연구인프라, 경영지원, 인력수급 등은 특정 부문에 관계없이 개선필요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통, 산업인프라 등은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하드웨어적 기업유치요인은 그 동안의 투자에 의해 지역간 차별화가 진행되었으나 경영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업유치요인은 부문 전반에 걸쳐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된다.

셋째, 각 지역, 업종, 기업규모, 그리고 유치경로에 따라 요인별 개선필요강도가 상당 부분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존재했다. 모든 집단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각각의 집단특성에 적합하게 기업유치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집단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기업유치 자원

투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유치 환경요인 중 K도에서 개선필요강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교통, 생활 인프라, 산업 인프라, 인력수급으로서 단기 또는 중기간에 걸친 개선이 거의 불가능한 요인들이다(변용환·김중화 2005). 이를테면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거나 복합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일은 기업유치보다도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초장기적 과제로 그 개선방향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기업군 위주로 유치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정책요인에 기업유치자원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환경요인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투입해도 개선여부가 불확실한 반면, 정책요인은 정책적 노력에 의해 가시적인 기간 내에 일정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정책요인은 인력양성 및 조달, 경영지원 및 연구인프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산학협동, 현장지원 등의 적극적이고 복합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한편 자금지원 성격인 금융지원, 조세감면, 보조금 등 자금지원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전 세계에 걸친 많은 경쟁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차별적 인센티브라기보다는 기본 서비스적 성격이 강하다.

여섯째, 외부로부터의 기업유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K도내에서 창업하여 성장한 기업과 외부로부터 이전해 온 기업 사이에 정책지원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실적주의적 정책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창업기업과 이전기업간 기업지원정책상의 차별 대우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기업유치 환경요인 만족도 회귀분석에서

모든 부문 및 집단 전반에 걸쳐 부동산가격상승가능성이 가장 보편적으로 유의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상승가능성은 기업인의 명시적인 응답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표시되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기업입지 만족도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단 조성 등 기업입지를 조성할 때 부동산 가격상승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이 K도에 한정됨에 따라 보편적인 기업유치요인을 도출해 내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또한 각 부문에 따른 집단별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소집단의 표본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통계적 적합성을 충분히 구현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단순평균값은 통계적 과학성이 부족한 점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의 확장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업종, 규모 등 부문별 모집단을 확산시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유치요인별 개선필요강도분석기법을 사용하면 보편성과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훨씬 유용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2006), 지방이전 지원제도 매뉴얼  
권영철(2005),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마케팅:  
한국의 경상북도와 중국의 허난성 사례를 중심으로,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nvest Korea  
금성권(2006), 부산지역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방안, 부산발전연구원  
김승진(1999), 투자인센티브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문남철(2006),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정책과 이전기업의 공간적 패턴,” **지리학연구**, 40(3), 353-366

- 박재곤·이원빈(2005),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박헌수(2005), “제조업 기업의 입지유형선택에 관한 연구,” **수도권연구** 2: 71-89
- 방비석(2005,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기업유치전략,” **지방행정**: 31-40
- 변용환(2007.7), “꼭꼭 묶는 규제 탓에 국가 경쟁력 똑똑, 생산성 막는 ‘정부 규제 인프라’ 후진국 수준” **시사저널**, 924
- 변용환(2007), 제조업투자유치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 변용환(2009),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고뇌, 강원발전연구원
- 변용환·김중화(2005), 바이오클러스터구축전략, 소화대우경제연구소(1992), 지역간 기업활동여건 및 입지비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윤재홍·김기영(1991), “생산전략과 성과측정간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생산관리연구**, 2(1):109-144
- 이규상(1995), 아파트형공장과 농공단지 중소기업의 입지 분석과 경영전략, **한국중소기업학회지**, 17(1): 199-227
- 이덕희·박재곤(1999), “과학기술집적지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 이만우·노상환(2002),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4(3): 227-245
- 이병기(2005),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이성근외(2003), 경북지역의 지역혁신체계구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 (재)경북테크노파크
- 이성봉외(2005),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태영·변용환(2006),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세무요인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15(2)
- 제주발전연구원(2006), 제주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06-5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차미숙·정윤희(200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연구, 국토연구원
- 최기호(2007),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세제에 대한 평가,” **세무학연구**, 24(1)
- 최인혁·오동욱(2005), “기업체 입지환경요인 수준과 업종, 입지유형, 생산체제 및 기업규모 간 관계분석,” **중소기업연구**, 27(4):225-268
- Asiedu, E.(2002), “On the determinants of FDI to developing Countries: Is Africa different?,” *World Development*, 30(1): 107-119
- Bastos, Fabiano and John Nasir(2004), Productivity and Investment Climate: What Matters Most, World Bank Policy Working Paper 3335.
- Brewer, T. and S. Young(1997,3), “Investment Incentives and the International Agenda,” *The World Economy*: 175-198.
- Crain, W. M.(2005), 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Report: 55
- Dollar et. al.(2004,2), Investment Climate and Firm Performance in Developing Economies, World Bank.
- Hallward-Driemeier, M., S. Wallsten and L.C. Xu (2003), The Investment Climate and Firm: Firm-Level Evidence from China, World Bank
- Schiffer, M. and B. Weder(2001), Firm size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Worldwide Survey Results, World Bank, IFC Discussion Paper, No.43.
- UNCTAD(1995), World Investment Report 1995: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Competitiveness, UN
- 아일랜드 산업개발청(2008), <http://www.idaireland.com>

## Study o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for the Attraction of Corporate Investment\*

Yong Hwan Byun\*\* · Moon Ho Lee\*\*\* · Joong Wha Kim\*\*\*\* ·  
Se Hak Chun\*\*\*\*\* · Tae Young Jun\*\*\*\*\*

### Abstract

In order to attract corporate investments into a provincial region, the regional government must have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resource-allocation strategies through which the corporate locations would become attractive. In relation to developing those strategies, this study used 19 attraction factors, including residents' favorable attitude, regional image, economic situation, reasonable real estate prices, infrastructures for life, labor supply, transportation, industrial infrastructures, financing, and possibility of real estate price increases, promotions, subsidies, financial support, tax reduction and exemption,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 labor supply, composition of infrastructure, management support, and research infrastructures. For this study, we used a total of 348 samples, including 235 manufacturers with more than 15 employees and 113 experts.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ype of regional area, type of response subjects, corporate size, and business type, with crosstabulation analyses.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factors, we investigated each factor using a significance test based on the degree of importance,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the degree of need for improvement. First of all, the needs for differentiated investments-attracting strategies were recognized since the degree of need for improvement on each factor varied with type of categorie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lready existing companies and the

---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Hallym University and Gangwo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llym University(yhbyun@hallym.ac.kr) and invited research fellow, Gangwo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primary author  
\*\*\* Graduate student,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llym University(lipolo@naver.com), co-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w-kim@hufs.ac.kr), co-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shchun@snut.ac.kr), 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Kyeongsang University(tyjun@nongae.gsnu.ac.kr), co-author

companies which newly moved in to the region in terms of the supports from the policy factors. Third, the possibility of real estate price increase was shown to have the largest effect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mong all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Key Words: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 Attraction of manufacturing investment